공적 예배 지침서

찰스 1세. 의회 제3차, 제5차 회기.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승인하고 확립하는 스코틀랜드 왕국 의회의 법령. 에든버러에서, 1645년 2월 6일.

1641년 폐하와 세 신분이 개최한 마지막 의회의 마지막 법령에 의거하여, 이 제1차 삼년 의회의 제2차 회기에 지금 모인 의회의 신분들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으로 최근 연합된 세 왕국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한 다음의 지침서를 승인하는 총회의 법령을, 그 지침서를 확립하는 잉글랜드 의회의 법령 및 지침서 자체와 더불어 공적으로 낭독하고 진지하게 숙고한 후; 그 지침서를 승인하는 총회의 법령에 따라, 그 지침서를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 법령을, 지침서 자체와 더불어, 의회의 신분들은 반대 목소리 없이, 그것의 모든 조항과 표제를 비준하고 승인하며, 앞서 말한 총회의 법령에 의회의 권위를 개입시키고 더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과 의회 법령의 힘과 효력을 가지게 하고, 이에 따라 시행되게 하며, 앞서 말한 총회의 법령에 따라 모든 점에서 그 지침서가 준수되도록 명한다.

알렉스 깁슨, 등기관.

에든버러 총회, 1645년 2월 3일, 제10차 회기.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의 확립과 시행을 위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법령.

이 세 왕국에서, 한 군주 아래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행복한 하나 됨과 종교의 획일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하고 선의를 가진 이들에 의하여 오래도록 그리고 간절히 소원되어 왔으며, 그 유대와 보루 없이는 확실하고 잘 세워지고 지속적인 평화를 바랄 수 없는 대조약의 주요 조항으로 제안되었음을 고려하고; 그 후, 세 왕국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서 더 큰 힘과 성숙함으로 되살아났으니, 그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 정치의 형태와 예배 지침서와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의 형식에 있어 가장 가까운 획일성을 힘써 이루도록 엄격히 매여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그 언약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탄원과 항의, 그리고 왕의 폐하께 위원들을 보낸 일과; 잉글랜드 의회의 명예로운 양원에 대한 선언과, 존경하올 신학자 총회와 잉글랜드 교회 사역의 다른 이들에게 보낸 서한들의 문제였으며; 또한 이는, 바라던 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위원들을 보낸 목적이었으니, 곧 잉글랜드 의회 양원과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신학자 총회가 임명할 위원회들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에서의 획일성을 협의하도록 위임하여 보낸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양심상, 우리가 여러 큰 위험을 무릅쓴 주된 동기와 목적은, 잉글랜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자연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삼키는 불꽃을 끄기 위함이었으니, 비록 그것이 이 왕국 자체 내의 약화와, 이 왕국을 침략한 원수의 이익을 가져올지라도 그러하였으며; 이 우리의 기쁨이 성취되게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사역이 그토록 진전되어, 잉글랜드 의회의 명예로운 양원이 그곳에 모인 양 왕국의 신학자들과 협의한 후 세 왕국 모두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합의하고, 우리의

승인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왔으니, 이는 이 교회와 스코틀랜드 왕국에 의하여도 합의됨으로써, 양 왕국의 이름으로 왕께 제출되어 그의 왕적 동의와 비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총회는 앞서 말한 지침서를 여러 차례 공적으로 낭독한 후, 공적으로나 사적 위원회에서나 많은 심의를 거친 후, 모든 이에게 그것에 반대할 온전한 자유를 준 후, 그것에 어떤 의문이 있는 모든 이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리라고 간절히 초청한 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반대 목소리 없이, 다음의 지침서를 그 모든 점에서, 첨부된 서문과 더불어 승인하기로 합의하며; 그 취지와 뜻에 따라, 그리고 서문의 의도에 따라, 이 왕국의 모든 관계된 사역자들과 다른 이들에 의하여 신중하고 획일적으로 준수되고 실천되도록 요구하고 규정하고 명령한다; 이 실천은 이 총회의 위원들로부터 여러 노회에 통지가 주어지는 대로 시작될 것이며, 그 위원들은 또한 이 지침서가 적시에 인쇄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이 왕국의 모든 교회의 사용을 위하여 그 인쇄된 사본 한 부가 마련되어 보관되게 할 것이다; 또한 각 노회는 그 사용을 위한 인쇄된 사본 한 부를 가지고, 그 경계 안의 모든 회중에서 그것이 준수되는지 태만히 되는지를 특별히 주목하여,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대회나 총회에 알릴 것이다. 다만 주의 만찬의 집행에 관한 지침서의 조항, 곧 성찬 참여자들이 상 주위나 곁에 앉는 것을 언급하는 조항이, 이 교회의 판단으로는, 어떤 성찬 참여자에게든 상에 나아와 받지 않는 것이 무관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혹은 우리가 목사가 각 성찬 참여자에게 요소를 분배하는 것을 승인하고, 성찬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분배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는 권징의 책들과 총회들의 법령에 정해져 있고 지침서에서 달리 명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있어, 이 교회의 질서와 관행을 해치지 않을 것임이 규정된다.

끝으로, 총회는 큰 기쁨과 감사로, 그토록 오래 소원해 온 종교의 획일성을 그토록 행복한 시기로 이끄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인정하니, 한때 예배의 형식에 있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왕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개혁 교회들보다 더 가까운 획일성에 이르게 되었음이라; 이는 우리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의 많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 눈을 밝히고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난을 크게 제거하여, 악의를 품은 자들과 반감을 품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을 품으사 기대하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여는 것이니, 그 기대와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한다; 주께 간구하오니, 이 왕국들을 이단과 분열과 실족과 세속성과, 건전한 교리와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순전하고 정결한 규례들을, 그 능력과 생명의 증진과 더불어 계속하게 하시어, 그의 크신 이름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나라의 확장과, 왕국들 사이의 평화와 사랑의 확증과, 그의 온 백성의 하나됨과 위로와,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상호 덕 세움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문

은혜로운 개혁의 초기에, 우리의 지혜롭고 경건한 선조들은 그 당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에서 헛되고 그릇되고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임을 발견한 많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로 인하여 많은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당시 제정된 공동기도

서를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미사와 나머지 라틴어 예식이 제거됨으로써 공적 예배가 우리 자신의 언어로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평범한 백성들도 이전에는 봉해진 책과 같았던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낭독되는 것을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오랜 슬픈 경험은, 잉글랜드 교회에서 사용된 예식서가 (그 편찬자들의 모든 노력과 경건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많은 경건한 이들뿐 아니라 해외의 개혁 교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모든 기도를 낭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담긴 많은 무익하고 부담스러운 의식들이 큰 해를 끼쳤으니, 이는 그것에 복종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역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양심을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식에 순응하거나 서명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규례들을 그들에게서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주의 상에서 멀어졌으며, 여러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이(신실한 목자들이 그토록 부족하던 시기에 수많은 영혼을 위태롭게 하면서) 사역의 실행에서 배제되고, 자신과 가족의 파멸을 위해 생계 수단을 빼앗겼다. 감독들과 그 파당은 마치 우리 가운데 그 예식서 외에는 다른 예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없는 것처럼 그 평가를 그토록 높이려 애썼으니, 이는 말씀의 설교를 크게 방해하였고 (몇몇 곳, 특히 최근에는)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혹은 기껏해야 공동기도의 낭독보다 훨씬 열등한 것으로 여겨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예식에 참석하고 그 안에서 자기 몫을 말하는 데 재능을 뽐내는 많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우상보다 나을 것이 없게 되어, 그들이 구원의 지식과 참된 경건에 대한 무지와 태만 가운데 더욱 완악해지게 하였다.

그동안 교황주의자들은 그 책이 자기들의 예식 대부분에 소용된다고 자랑하였으며, 이로써 그들의 미신과 우상숭배에 있어 적잖이 확고해져서,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려 힘쓰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으니; 이러한 기대는, 옛 의식들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가장된 정당화 위에서, 교회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의식들이 더해짐으로써 최근 크게 고무되었다.

여기에 (예견되지 않았으나 이미 일어난 일로서) 이 예식서가,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이 자기 손에 마련해 준 고정된 형식에 만족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신 모든 종들에게 기꺼이 부어 주시는 기도의 은사를 실행하려 힘쓰지 않는, 게으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역을 만들고 증가시키는 큰 수단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항상 그러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끝없는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침묵당한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소망을 품었던 다른 이들에게 올무가 되었으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역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다른 학문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류와 미신을 발견하고, 경건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설교와 기도의 은사에 이르는 더 많고 나은 방편을 허락하시는 이 최근의 시대에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들과, 그 책 전체에 관한 다른 많은 무게 있는 고려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 세부 사항들로 인하여 — 새로움을 사랑해서도 아니요, 우리의 첫 개혁자들을(우리가 그들이 지금 살아 있다면 이 일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정결케 하고 세우기 시작하도록 세우신 훌륭한 도구로 인정하며, 우리와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들이거니와) 경시하려는 의도에서도 아니라 — 오히려 지금 우리를 더 큰 개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며, 다른 개

혁 교회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경건한 이들의 소원에 응답하며, 나아가 우리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서 약속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획일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공적 증거를 얼마간 남기기 위하여; 진지하고 빈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육체와 피가 아니라 그의 거룩한 말씀과 많이 의논한 후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사용되던 많은 예식과 의식과 더불어 옛 예식서를 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통상적 때와 특별한 때를 막론하고 공적 예배의 모든 부분을 위한 다음의 지침서에 합의하였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각 규례에서 신적 제정에 속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데 유의하였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 규칙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신중함의 규칙에 따라 제시하려 힘썼으니; 우리의 목적은 오직 기도들의 일반적인 요지와 뜻과 취지, 그리고 공적 예배의 다른 부분들이 모든 이에게 알려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들에 있어 모든 교회의 일치가 있게 하고; 사역자들이 이로써 그 직무에 있어 교리와 기도에서 동일한 건전함을 유지하도록 지도받으며, 필요하다면 얼마간의 도움과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되, 그럼에도 이로 인하여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일깨우는 데 게으르고 태만해지지 않게 하며; 오히려 각자가 묵상을 통하여,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떼를 돌아보고, 신적 섭리의 길을 지혜롭게 관찰하여, 모든 경우에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과 혀에 더 많거나 다른 기도와 권면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유의하게 하려 함이다.

회중의 모임과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에서의 처신에 관하여

회중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백성은(미리 자기 마음을 예비한 후) 나아와 그것에 참여하여야 하며, 태만으로 인해서나 사적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는 무례하게, 곧 경배 없이 자기 자리나 좌석에 앉거나, 이쪽저쪽으로 절하며 회중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진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야 한다.

회중이 모이면, 목사는 그들을 엄숙히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 대한 경배로 부른 후, 기도로 시작하여야 한다.

"주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그들이 그때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임재 앞에 나아왔음을) 온전한 경외와 겸손으로 인정하며, 그토록 큰 일에 나아가기에 자기들의 비천함과 무가치함과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간구하기를, 그가 그들을 사하시고, 거행될 모든 예배에서 그들을 돕고 받아 주시며, 낭독될 그 특정 부분의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행하는 것".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백성은 그것에 온전히 유의하여야 하니, 목사가 그때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으며; 참석하거나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적으로 속삭이거나 대화하거나 인사하거나 절하는 것을 더욱 삼가야 하고; 목사나 백성을 어지럽히거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두리번거림과 졸음과 그 밖의 부적절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회중에 들어올 때 자기 사적인 신앙 행위에 몰두하지 말고, 그 순간 거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회중과 함께하도록 경건

하게 자신을 갖추어야 한다.

거룩한 성경의 공적 낭독에 관하여

회중 안에서의 말씀 낭독은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이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존과 복종을 인정한다), 그분에 의하여 그의 백성의 덕을 세우기 위해 거룩하게 하신 방편이므로, 목사와 교사들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역을 지향하는 이들은 노회가 허락한다면 이따금 회중 안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자기 설교의 은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정경(그러나 통상 외경이라 불리는 것은 어느 것도)이, 허락된 가장 좋은 번역으로, 통용어로 명료하게 낭독되어, 모든 이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 번에 낭독할 부분의 분량은 목사의 지혜에 맡기되; 통상적으로 각 모임마다 각 성경의 한 장씩을 낭독하는 것이 합당하며; 장이 짧거나 내용의 연결이 요구할 때에는 때로 더 낭독할 수 있다.

모든 정경은 순서대로 낭독되어야 하니, 이는 백성이 성경 전체를 더 잘 알게 하려 함이며; 통상적으로 어느 한 성경의 낭독이 주의 날에 끝나면, 그다음 주에 이어서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낭독자가 그 청중의 덕을 세우는 데 가장 좋다고 여기는 성경, 예를 들어 시편서와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자주 낭독할 것을 권장한다.

낭독하는 목사가 낭독하는 것의 어떤 부분을 강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에는, 그 장이나 시편 전체가 끝나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시간을 고려하여 설교나 다른 규례들이 방해받거나 지루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다른 모든 공적 행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거룩한 성경의 공적 낭독 외에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여야 하며(그리고 읽을 줄 모르는 다른 모든 이에게도, 나이나 다른 이유로 무능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읽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하여야 한다) 성경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교 전 공적 기도에 관하여

말씀의 낭독이(그리고 시편 찬송이) 끝난 후, 설교할 목사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청중의 마음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감동되도록 힘써야 하니, 이는 모두가 주 앞에서 그 뜻으로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리고 목마르게 하여, 죄의 더 완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되, 부끄러움과 거룩한 낯 붉힘으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주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려 함이다:

먼저 원죄로 인한 우리의 크나큰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영원한 정죄에 처하게 하는 죄책 외에도) 다른 모든 죄의 씨앗이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부패시키고 오염시켰으며,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 물들이고, (억제되지 않거나 우리 마음이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들 중 가장 비천한 자들도 저지른 적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범법과 주를 향한

가장 큰 반역으로 터져 나올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실제의 죄들, 곧 우리 자신의 죄, 위정자들의 죄, 사역자들의 죄, 그리고 온 나라의 죄로 인함이니,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여러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 죄들은 많고 두려운 가중 요소를 지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 금지된 것을 행하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단지 무지와 연약함에서만이 아니라, 더욱 방자하게도 우리 마음의 빛과 우리 양심의 확증과 그분 자신의 성령의 반대 감동을 거슬러 그리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거리도 갖지 못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였을 뿐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많은 초대와 제안들을 거스렀으며; 마땅히 해야 할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려 힘쓰지도,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 삶에서 행하려 힘쓰지도 않았다.

우리 마음의 눈멂과,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음과, 안일함과, 미지근함과, 열매 없음을 애통히 여기며; 죽임과 삶의 새로움을 위하여, 경건의 능력 안에서의 실천을 위하여 힘쓰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 중 가장 나은 자들조차 하나님과 그토록 확고히 동행하지 못하였고, 자기 옷을 그토록 흠 없이 지키지 못하였으며, 마땅히 해야 할 대로 그분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 있지 못하였음을 애통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크나큰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의 개혁과, 우리 자신의 결심과 약속과 서원과 엄숙한 언약과 다른 특별한 서약들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행한, 회중이 특별히 유죄한 다른 죄들을 애통히 여기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가장 작은 자비조차 받기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가장 완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기에 더욱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과, 정당하게도 그분이 그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이생에서 온갖 영적이며 현세적인 심판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며, 그 후 완전한 흑암 속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으로 우리를 던지사, 거기서 울음과 이 갊이 영원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에 은혜로운 응답이 있으리라는 소망으로 스스로 격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제물과 만족과 중보의 풍성함과 충족함 안에서, 그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이의 오른편에서,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자비와 은혜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 안에서, 그 언약의 동일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겸손하고 간절히 자비로 구하되, 오직 우리의 그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쓰라린 고난과 보배로운 공로로만 그리하는 것.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양자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 사함과 화해의 온전한 확신을 인치시기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이를 위로하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 평강을 말씀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그리고 안일하고 자만한 죄인들에 대하여는, 그 눈을 여시고, 그 양심을 확신시키시며,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의 기업을 받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사함과 더불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하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며 흔히 우리를 압제하는 죄를 죽이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대화와 부르심의 의무를 위하여 우리를 능하게 하고 자격 갖추게 하는 은혜를 위하여; 시험에 맞서는 힘을 위하여; 복과 십자가의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과 순종 안에서 견디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회심과, 이방인의 충만함과,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우리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짐을 위하여; 해외의 고통받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적 파당의 폭정과, 터키인의 잔혹한 압제와 모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하여; 개혁 교회들, 특별히 이제 엄숙한 국가적 동맹과 언약으로 더 엄격하고 경건하게 연합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교회들과 왕국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먼 지역에 있는 우리의 개척지들을 위하여: 더욱 특별하게는 우리가 그 지체인 그 교회와 왕국을 위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화와 진리를, 그의 모든 규례의 순전함을, 경건의 능력을 세우시고; 이단과 분열과 세속성과 안일함과 은혜의 방편 아래 열매 없음을 막고 제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엄숙한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모든 권세들, 특별히 왕의 존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통치 모두에 있어 그를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종교와 정의 안에 세우시며, 악한 조언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복음의 보존과 전파를 위한, 선을 행하는 자들의 격려와 보호를 위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위한, 온 교회와 그의 모든 왕국의 큰 유익을 위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시기를; 왕비의 회심과, 왕세자와 나머지 왕실 자손의 경건한 교육을 위하여; 우리 군주의 누이이신 고난받는 보헤미아 왕비의 위로를 위하여; 그리고 저명하신 라인 선제후 찰스 왕자가 그의 모든 영지와 존엄을 회복하고 세워지기를 위하여; 상원(각 왕국에서 각각 모일 때)의 복과, 귀족과 재판관들과 부속 위정자들과 향신층과 온 평민을 위하여; 모든 목사와 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 본이 되도록 거룩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자비롭게 하시며, 그 사역에 있어 건전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풍성한 성공과 복이 뒤따르게 하시며, 그의 모든 백성에게 그분 자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기를; 대학들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학교와 신학교를 위하여, 그것들이 학문과 경건 안에서 더욱더 번성하기를; 그 도시나 개별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사역 위에, 시민 정치 위에, 그것을 이루는 모든 가정과 사람들 위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어떤 내적이나 외적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때가 그 필요에 따라 순조롭고 열매 맺기를; 우리가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혹은 우리가 노출된 심판들, 곧 기근이나 역병이나 칼과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온 교회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의 공로와 중보로 인한 우리 인격의 받아들여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거룩한 규례들을 경건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임을 고백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가 주의 날, 곧 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 모든 의무 안에서, 우리

자신과 그의 백성의 다른 모든 회중을 위하여, 이날 거행되고 누려지는 복음의 풍성함과 탁월함에 따라, 그의 은혜와 효과적인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무익한 청자였고, 이제도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곧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유익을 얻도록 가르치시는 주께서, 그 외적 방편과 더불어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 안에서 우리의 평강에 속한 것들에 이르는 그러한 척도에 이르게 하시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과 비교하여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며; 나타날 영광의 첫 열매를 맛봄으로써, 그분과 더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의 오른편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더욱 특별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집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도록 부르심 받은) 그의 종에게 지혜와 신실함과 열심과 표현력을 특별히 공급하시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그 몫을 따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과 증거로 올바로 나누게 하시고; 주께서 청중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그들이 능히 영혼을 구원할 그 접붙여진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며, 그들을 그 말씀의 좋은 씨를 받을 좋은 땅과 같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염려와 자기 마음의 완악함과 그 밖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청종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도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시고 그들 안에 사시어, 그들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영원토록 모든 선한 말과 일에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이것이 통상적인 공적 기도에 있어 합당한 순서라고 여긴다; 그러나 목사는(합당하다고 여기는 신중함에 따라) 이 간구들의 어떤 부분을 자기 설교 후로 미루거나, 아래에서 지적하는 감사의 일부를 설교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말씀의 설교에 관하여

말씀의 설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사역에 속한 가장 크고 탁월한 사역 중 하나이므로,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기 자신과 듣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안수의 규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이토록 중요한 봉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다고 전제되니: 원어와, 신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예와 학문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신학 전체에 대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통상적인 신자들보다 더욱 그 감각과 마음이 그 안에서 훈련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그 밖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로, (말씀의 독서와 연구와 더불어) 그는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구하여야 하니, 아직 얻지 못한 어떠한 진리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는 공적으로 준비한 것을 나타내기 전에 사적인 준비 가운데 활용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의 설교 제목은 종교의 어떤 원리나 기초를 나타내는 성경의 어떤 본문이거나,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혹은 그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거룩한 성경의 어떤 장이나 시편이나 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의 본문에 대한 서론은 짧고 명료하여야 하며, 본문 자체나 문맥이나 어떤 평행 구절이나 성경의 어떤 일반적 문구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

만일 본문이 (때로 역사나 비유에서 그러하듯) 길다면 간략한 요약을 줄 것이며, 짧다면 필요하다면 그것의 부연 설명을 줄 것이니: 두 경우 모두 본문의 취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서 이끌어 낼 교리의 주된 항목과 근거를 지적하여야 한다.

자기 본문을 분석하고 나눌 때에는, 말의 순서보다 내용의 순서를 더 유의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청중의 기억에 너무 많은 구분의 항목들을 지우지 말고, 예술의 애매한 용어로 그들의 마음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의 교리들을 제시할 때에는, 첫째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둘째로 그것이 본문에 담기거나 본문에 근거한 진리인지, 청중이 그것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가르쳐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셋째로 그것이 주로 지향하는 교리들을 주로 강조하고, 청중의 덕을 세우는 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교리는 명료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혹은 그 안의 무엇이든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열어야 하고, 본문으로부터의 그 귀결도 밝혀져야 한다. 교리를 확증하는 성경의 평행 구절들은 많기보다는 명료하고 적절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강조되어 당면한 목적에 적용되어야 한다.

논거나 이유는 견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예시는 어떤 종류든 빛으로 가득해야 하며, 진리를 청중의 마음에 영적 즐거움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성경이나 이성이나 청중의 편견에서 어떤 명백한 의문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면, 겉보기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이유에 답하며, 편견과 오류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 그 외에는, 끝이 없으므로 그것을 설명하고 답하는 것이 덕을 세우기보다 방해가 되는 헛되거나 그릇된 궤변으로 청중을 붙들어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일반적인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 비록 그것이 결코 충분히 밝혀지고 확증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특별한 사용에 이르게 하여 청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그 자신에게도 큰 어려움의 일이 되어 많은 신중함과 열심과 묵상을 요구하며, 자연적이고 부패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불쾌한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그는 이를 행하되,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고 능력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함을 느끼게 하고; 만일 어떤 불신자나 무지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자기 교리의 귀결인 어떤 진리에 대한 교훈이나 정보의 사용에 있어서는, (합당할 때) 그것을 당면한 본문의 몇몇 견실한 논거와, 성경의 다른 구절들, 혹은 그 진리가 한 가지인 신학의 그 통상 주제의 본성으로부터 확증할 수 있다.

거짓 교리를 논박함에 있어서는, 무덤에서 옛 이단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하게 신성모독적인 견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백성이 어떤 오류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견실하게 논박하고, 모든 반론에 맞서 그들의 판단과 양심을 만족시키려 힘써야 한다.

의무를 권면할 때에는,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편들도 가르쳐

야 한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경계와 책망과 공적 훈계에 있어서는 (이는 특별한 지혜를 요하니) 필요한 경우에 따라 죄의 본성과 크기와, 그것에 따르는 비참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청중이 그것에 사로잡히고 놀랄 위험도 보여 주어야 하며, 그것을 피하는 치유책과 최선의 방법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위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험에 맞선 일반적인 것이든, 어떤 특별한 문제나 공포에 맞선 개별적인 것이든, 괴로운 마음과 고통받는 영이 반대로 제기할 수 있는 이의들에 신중히 답하여야 한다. 때로는 어떤 증거의 표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니(이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역자들에 의하여, 신중함과 분별로, 그 표지들이 거룩한 성경에 명백히 근거하여 행해질 때 지극히 유익하다), 이로써 청중이 자기가 그 은혜에 이르렀는지, 그가 권면하는 그 의무를 행하였는지, 혹은 책망받은 죄를 범하였는지, 경고된 심판의 위험에 처하였는지, 혹은 제시된 위로가 속한 자인지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심사받을 때 그 형편에 따라 의무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부족과 죄로 겸비해지며, 자기 위험을 느끼고 위로로 강해지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자기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든 교리를 항상 다 다룰 필요는 없으므로, 자기 양 떼와의 거주와 대화를 통하여 가장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여기는 사용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빛과 거룩함과 위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본문에 대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험상 하나님께 크게 복 받고, 백성의 이해와 기억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권장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1. 고통으로써, 주의 일을 태만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2. 명료하게, 가장 비천한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로써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써 진리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알지 못하는 언어와 낯선 문구와 소리와 말의 리듬을 무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며; 교회 저술가들이나 다른 인간 저자들, 고대든 현대든, 아무리 세련되었을지라도 그 문구를 절제하여 인용하는 것.

3. 신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예와 백성의 회심과 덕 세움과 구원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류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그 몫을 주며, 모든 이에게 공평한 존중을 가지되, 가장 비천한 자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가장 위대한 자를 그 죄에 있어 봐주지도 아니하는 것.

4. 지혜롭게, 자기의 모든 교리와 권면과, 특히 자기의 책망을 가장 잘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며; 각 사람의 인격과 처지에 마땅한 모든 존중을 보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격정을 섞지 아니하는 것.

5.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람들의 부패함이 그와 그의 사역을 경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목소리와 표현을 피하는 것.

6. 사랑스러운 애정으로써, 백성이 모든 것이 그의 경건한 열심과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소원에서 나온 것임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7.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자기 마음에 확신한 자로서; 그 양 떼 앞에서 그것에 있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행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진지하게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의 복에 맡기고, 자기 자신과 주께서 그를 감독으로 세우신 양 떼를 살피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교리는 부패하지 않게 보존되고, 많은 영혼이 회심하고 덕을 세우며, 그 자신도 이생에서조차 자기 수고로부터 여러 위로를 받고, 그 후에는 오는 세상에서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한 회중에 사역자가 한 사람 이상 있고, 이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을 때에는, 각자가 가장 뛰어난 은사에 따라, 그리고 서로 합의하는 대로, 교리나 권면에 더 특별히 힘쓸 수 있다.

설교 후 기도에 관하여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그의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대하여, 그 안에 계시된 풍성하고 하늘에 속한 복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택하심, 부르심, 양자 됨,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이 땅을 적그리스도적 흑암과 폭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국가적 해방에 대하여; 종교의 개혁에 대하여; 그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많은 현세적 복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

복음과 그 모든 규례가 그 순전함과 능력과 자유 안에 지속되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설교의 주된, 가장 유용한 내용을 몇 가지 간구로 바꾸어; 그것이 마음에 머물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죽음과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지켜보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것들의 죄악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우리의 영적 제사가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단지 기도의 모범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지극히 완전한 기도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기도들 안에서도 사용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성례의 집행과, 공적 금식일과 감사일의 거행과, 특별한 간구와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지금 우리의 의무가 신학자 회의와, 육지와 바다의 군대들 위에, 왕과 의회와 왕국의 수호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기도인 것처럼), 각 사역자는 설교 전이나 후의 자기 기도에서 그러한 경우들에 스스로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식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과 지혜로 인도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유가 그에게 남겨진다.

기도가 끝나면, 편리하다면 시편을 노래하게 하라. 그 후에는(그때 회중에 관계된 그리스도의 다른 규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사가 엄숙한 축복으로 회중을 보내는 것이다.

세례 성례에 관하여

성례의 집행에 관하여:

먼저,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불필요하게 지연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사람에 의하여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집행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에 의하여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인 장소나 은밀히 집행되어서도 안 되고, 공적 예배의 장소에서, 백성이 가장 편리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교황주의 시대에 세례반이 부적절하고 미신적으로 놓였던 곳에서는 안 된다.

세례받을 아이는, 전날 목사에게 통지한 후, 아버지가, 혹은 (그의 부득이한 부재의 경우) 그를 대신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벗이, 그 아이가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데려와야 한다.

세례 전에, 목사는 이 성례의 제정과 본질과 사용과 목적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의 말을 하여야 하니,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것. 그것은 은혜 언약의 인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그와 연합함의, 죄 사함의, 중생의, 양자 됨의, 영생의 인침이라는 것. 세례에서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가 원죄와 실제 죄의 모든 죄책을 제거함과, 그리스도의 영의 거룩하게 하는 덕이 죄의 지배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부패에 맞섬을 모두 나타내고 표하는 것이라는 것. 세례하는 것, 곧 물을 뿌리거나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로 인한 죄의 정결함을, 죄를 죽임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켜짐과 더불어 나타낸다는 것: 그 약속은 신자들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신실한 자들의 후손과 후예는,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의 인침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복음 아래서 교회의 외적 특권들에 대한 권리도,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못지않게 있다는 것이니, 은혜의 언약은 본질에 있어 동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의 위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아이들을 자기 앞에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다는 것. 아이들은 세례로 말미암아 보이는 교회의 품에 엄숙히 받아들여져, 세상과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구별되고, 신자들에게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자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대적하기로 부인하며,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싸울 의무를 지닌다는 것. 그들은 세례 전에도 그리스도인이며 언약적으로 거룩하며, 그러므로 세례받는다는 것. 세례의 내적 은혜와 덕은 그것이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 열매와 능력은 우리 생애 전체에 미친다는 것; 그리고 외적 세례가, 그것이 없다고 하여 아이가 정죄의 위험에 처하거나,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한(그것을 가질 수

있는 때와 곳에서), 부모가 죄를 짓게 될 만큼 그토록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러한 혹은 이와 비슷한 교훈에 있어, 목사는 세례 교리에 있어서의 무지나 오류와, 백성의 덕 세움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자유와 경건한 지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훈계하여야 하니,

"자기 세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스른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기 믿음을 일깨우고; 자기 세례와, 그것으로 하나님과 자기 영혼 사이에 인쳐진 언약을 향상시키고 올바로 사용할 것을 훈계하는 것."

부모에게는 권면하여야 하니,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헤아리고; 그 아이를 기독교 종교의 근본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주의 양육과 훈계로 기를 것과; 만일 태만하다면 자기 자신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을 알게 할 것: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그의 엄숙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행해지면, 기도는 제정의 말씀과 함께, 이 영적 사용을 위하여 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동반되어야 하며; 목사는 이 혹은 비슷한 취지로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를 약속의 언약이 없는 외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규례들의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세례라는 그 자신의 규례를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가 그의 성령의 내적 세례를 물의 외적 세례와 연합시키시기를; 그가 이 세례를 그 아이에게 양자 됨과, 죄 사함과, 중생과, 영생과,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약속들의 인침이 되게 하시기를: 이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형상으로 심기어; 그 안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져, 그가 그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다."

그런 다음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물어야 하니; 그것을 들으면, (아이를 이름으로 부르며) 말하여야 한다

나는 너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을 발할 때, 그는 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니,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예식도 더하지 않고, 물을 아이의 얼굴에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법할 뿐 아니라 충분하고 지극히 합당하다.

이것이 행해지면, 그는 이 혹은 같은 취지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여야 한다:

"주께서 언약과 자비를 지키심에 참되시고 신실하심을 온전한 감사로 인정하며. 그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사, 우리를 그의 성도 가운데 헤아리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의 이 독특한 표와 증표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가 그의 진리와 특별한 섭리로 날마다 어떤 이들을 그의 교회의 품 안으로 들이시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신 헤아릴 수 없는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의 지속과 성장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그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날마다 더욱 이어 가시고 확증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집에 엄숙히 들어온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 되신 보호와 방어 아래 받아들이시고,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그를 기억하시기를; 만일 그가 유년기에 이 생을 떠난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주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그리고 만일 그가 살아 분별의 나이에 이른다면, 주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의 세례를 그에게 유효하게 하시며, 그의 신적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붙드시어, 그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게 하시기를."

주의 만찬 성례에 관하여

주의 교제 혹은 만찬은 자주 거행되어야 하나; 그 빈도는 각 회중의 목사와 다른 교회 치리자들이, 자기 맡은 백성의 편의와 덕 세움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숙고하고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집행될 때에는, 우리는 아침 설교 후에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무지한 자들과 추문 있는 자들은 주의 만찬 성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성례가 편의상 자주 집행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행 전 안식일에 공적 통지가 있어야 하며, 그때든 그 주간의 어느 날이든, 그 규례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무엇인가가 가르쳐져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모두가 그 하늘의 잔치에 더 잘 준비되어 나아올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집행의 날이 이르면, 목사는 자기 설교와 기도를 마친 후, 짧은 권면을 하여야 한다:

"이 성례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헤아릴 수 없는 은택과, 그 목적과 사용을 표현하며; 우리의 이 순례와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와 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할 크나큰 필요성을 밝히는 것: 우리가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주리고 목마른 영혼으로 그것에 나아감이 얼마나 필요한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는 것.

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모든 무지한 자와 추문 있는 자와 신성모독적인 자와, 자기 지식이나 양심에 반하는 어떤 죄나 죄과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 거룩한 상에 감히 나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의 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있으며, 자기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은혜의 더 큰 진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를 주의 상에 나아오도록 특별히 초청하고 격려하며; 같은 이름으로, 그들의 연약하고 지친 영혼에 편안함과 새로움과 힘을 확신시켜 주는 것."

이 권면과 경고와 초청이 끝나면, 앞서 상이 단정히 덮이고, 성찬 참여자들이 그 주위나 곁에 질서 있게 앉을 수 있도록 놓인 후, 목사는 자기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거룩하게 하고 축복함으로써 그 행위를 시작하여야 하니(떡은 그가 떼어 나누어 줄 때 성찬 참여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알맞은 그릇에 준비되며; 포도주도 큰 잔들에 준비된다), 먼저 몇 마디로, 그 밖에는 통상적인 이 요소들이 이제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의 제정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첫 서신, 11장 23절, "내가 주께로 부터 받은 것을" 등부터 27절까지(*고린도전서 11:23-27*)를 낭독하되, 목사는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다.

떡과 포도주의 기도, 감사, 혹은 축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도 천사도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우리 비참함의 크기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비조차 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크나큰 무가치함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 구속의 그 크신 은택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공로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은혜의 모든 방편, 곧 말씀과 성례로 인하여; 특별히 이 성례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인쳐지는바, 다른 이들에게는 부인되었으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그토록 많이 오래 남용하였음에도 크신 자비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고백하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자유와 생명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그 자신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받아들여지고, 그의 성령으로 인쳐져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얻는 것.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의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는 그가 이 요소들, 곧 떡과 포도주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신의 규례를 복 주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 그로 먹임을 받아, 그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며,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을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을, 그러한 거룩한 행위에 걸맞은 합당한 정서로 행하려 힘쓰며, 백성 안에서도 같은 것을 일으키도록 힘써야 한다.

요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후, 목사는 상 곁에 서서 떡을 손에 들고 이러한 표현으로(혹은 이 경우에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가 사용한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여야 한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정과 명령과 본을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고, 감사한 후, 이를 떼어 너희에게 주노라; (거기서 목사는, 그 자신도 함께 성찬에 참여할 것이므로, 떡을 떼어 성찬 참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받아서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떼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그를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목사는 잔을 들고 이러한 표현으로(혹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나 그 사도가 사용한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여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과 본을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여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성찬 참여자들에게 그것을 준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 다 이것을 마시라."

모든 이가 성찬에 참여한 후, 목사는 몇 마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례 안에 나타난 대로 상기시키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할 수 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히 감사드려야 한다,

"그가 이 성례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온 예식의 결함에 대한 용서와, 그의 선한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구하여, 그토록 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로 그 은혜의 힘으로 행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은 공적 예배의 어떤 부분도 그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정돈되어야 한다.

주의 날의 성수에 관하여

주의 날은 미리 기억되어야 하니, 우리의 통상적 직업의 모든 세상 사업이 때에 맞게 정돈되고 제쳐 두어져, 그날이 이르렀을 때 그날의 합당한 성수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온 날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주께 거룩한 것으로 지켜져야 하니, 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온 그날 동안 모든 불필요한 일로부터 거룩한 그침 혹은 쉼이 있어야 하며, 모든 오락과 소일거리뿐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말과 생각도 삼가야 한다.

그날의 식사는, 종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로부터 불필요하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정돈되어야 한다. 각 사람과 가정의 사적 준비가 있어야 하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우시고 그의 사역에 복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그의 공적 규례 안에서 하나님과 더 편안한 교제로 이끌 수 있는 다른 거룩한 실천들로써 그리하여야 한다.

온 백성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에 모여, 온 회중이 처음부터 참석하고, 한마음으로 공적 예배의 모든 부분에 엄숙히 함께하며, 축복 후까지 자리를 뜨지 않게 하여야 한다.

회중의 공적인 엄숙한 모임 사이나 이후에 남는 시간은, 독서와 묵상과 설교의 반복에 사용되어야 하니; 특별히 자기 가정을 불러 들은 것을 되새기게 하고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거룩한 담화와, 공적 규례에 복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와, 시편 찬송과, 병자 방문과, 가난한 자 구제와, 그 외 안식일을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경건과 자선과 자비의 비슷한 의무들로 그리하여야 한다.

혼인의 엄숙한 거행에 관하여

비록 혼인이 성례는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류에게 공통되고 공적 관심사이지만; 혼인하는 이들은 주 안에서 그리하는 것이며, 그 새로운 처지에 들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특별한 교훈과 지도와 권면이 필요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혼인이 정당한 말씀의 사역자에 의하여 엄숙히 거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 위에 복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혼인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혈족이나 인척 관계의 촌수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결혼 당사자들은 분별 있는 나이에 이르러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거나, 합당한 이유로 서로 동의를 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엄숙히 거행하기 전, 목사는 각기 그들의 가장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거주지의 회중에서 혼인의 뜻을 안식일 세 번 앞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고에 대하여, 혼인을 맺어 줄 목사는 혼인의 엄숙한 거행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뜻을 공고하기 전(만일 결혼 당사자들이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 혹은 그들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권한 아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그 회중의 교회 직원들에게 알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같은 것이, 비록 성년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의 첫 혼인에 있어서의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느 당사자의 이후의 혼인에 있어서는, 먼저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는(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혼인을 맺지 않도록, 그들의 동의를 얻으려 힘쓰도록 권면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혼인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동의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혼인의 뜻이나 계약이 공고된 후에는, 혼인이 오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합당하게 통지받은 후, 그것을 반대할 아무것도 없다면, 공적 예배를 위하여 권위로 지정된 장소에서, 상당수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 앞에서, 하루 중 적절한 시각에, 공적 겸비의 날을 제외한 연중 어느 때든지 그것을 공적으로 엄숙히 거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주의 날에는 행해지지 않기를 권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므로, 목사는 이 취지로 그들 위에 복이 있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되,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비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고, 그를 격동하여 우리의 모든 위안을 쓰게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임재와 은총이 모든 처지의 행복이며 모든 관계를 달게 하시는 주께 간절히 구하여, 이제 혼인의 명예로운 상태로 결합될 이들의, 곧 그의 하나님의 언약의 몫이 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가 그의 섭리로 그들을 결합시키셨듯이,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그들의 새로운 처지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그 처지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위안을 누리며, 염려를 견디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가 끝나면, 목사가 성경으로부터 그들에게 간략히 선언하는 것이 합당하다,

"혼인의 제정과 사용과 목적을, 그리고 온전한 신실함으로 서로에게 이행해야 할 부부의 의무들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권면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모든 혼인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모든 부부의 위안을 감사하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서로 함께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촉구하며;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이 엄격히 회계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결혼 당사자들의 엄숙한 진술 후에, 만일 그들 중 누구든지 미리 계약했거나 다른 이유로 그들이 합법적으로 혼인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유를 안다면, 지금 그것을 밝히도록 하고; 목사는(만일 아무런 장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먼저 남자가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나, [...]는 너, [...]를 내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하노니,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너에게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 되리라.

그런 다음 여자가 남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 말을 할 것이다:

나, [...]는 너, [...]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하노니,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너에게 사랑하고 신실하며 순종하는 아내가 되리라.

그러면 다른 어떤 예식도 없이, 목사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할 것이며; 이렇게 이 취지의 기도로 그 행위를 마칠 것이다:

"주께서 그 자신의 규례에 그의 복을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이제 혼인한 이들에게 그의 사랑의 다른 증표들과 더불어, 특별히 혼인의 위안과 열매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결혼 당사자들의 이름을 그 혼인 날짜와 함께 즉시 기록하는 등록부가 신중히 보관되어야 하니, 이는 이를 위하여 마련된 책에 기록되어, 관계된 모든 이가 참고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병자 방문에 관하여

목사의 의무는 그에게 맡겨진 백성을 공적으로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르치는 것이며; 특별히 시간과 힘과 자기 신변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모든 합당한 경우에 그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는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훈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은 자주 자기 목사와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상의하여야 하고; 질병의 때에는 힘과 지각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기 전에 때에 맞게 그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질병과 환난의 때는, 지친 영혼에게 때에 맞는 말을 베풀 특별한 기회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손에 맡겨진 것이니: 이는 그때에 사람들의 양심이 영원을 위한 자기 영적 상태를 생각하는 데 더 깨어 있거나 마땅히 그러해야 하며; 사탄도 그때를 이용하여 더 고통스럽고 무거운 시험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병자에게 보내지고 이르렀을 때, 온전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의 영혼에 어떤 영적 유익을 베풀도록 이 취지로 힘써야 한다.

현재의 병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는 성경으로부터 그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병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몸의 부조화로만 오는 것도 아니라, 그것에 타격받은 각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지혜롭고 정하신 인도로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에 대한 불쾌함으로 그에게 부과되었든, 그의 교정과 개선을 위한 것이든, 그의 은혜들을 시험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든,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한 것이든, 그가 하나님의 방문을 거룩하게 사용하려 진실하게 힘쓴다면, 그의 모든 고난은 그의 유익으로 바뀌어 그의 선을 위하여 함께 작용할 것이며, 그의 징계를 멸시하지 않고 그의 교정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무지하다고 의심되면, 그는 종교의 원리, 특별히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것을 그에게 시험하며;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 은혜들의 본성과 사용과 탁월함과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언약과,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에 관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는 병자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이전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상태를 찾고 시험하도록 권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병자가 자기를 덮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의심이나 시험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교훈과 결론이 주어져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자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그를 그의 죄들과, 그 죄책과 마땅한 형벌에 대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영혼이 얻는 더러움과 오염에 대하여, 그것들로 인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확신시키려 힘써야 하니, 이는 그가 참으로 그것들로 인하여 감동되고 겸비해지게 하려 함이며: 또한 회개를 미루고 어느 때든 제시되는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의 위험을 알게 하여, 그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를 어리석고 안일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를 깨닫게 하여야 하니, 그 앞에는 자기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외에는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거룩함의 길로 걷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힘썼다면, 비록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없지 않더라도; 혹은 만일 그의 영이 죄의 자각으로 상하였거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각의 결핍으로 낙담하였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음과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충족함,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제안들을 제시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온 마음으로 믿는 모든 이는,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그에게 제시하여 그를 일으키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워할 영적 악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유익할 수 있으니, 죽음의 쏘는 것인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고, 그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으며, 무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신이 몸소 영광에 들어가사 그의 백성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으니: 이는 생명도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게 하려 함이며, 그 안에서 이러한 이들은, 비록 지금 흙 속에 뉘어지더라도, 영생에 이르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하늘에 대한 자기 처지에 관하여 근거 없는 자비나 선함에 대한 확신을 조심하여, 자기 안의 모든 공로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비를 얻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와 중보로만 그리하도록 권할 수 있으니, 그는 진실과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기로 약속하셨다. 또한 병자가 절망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니, 그의 죄로 인하여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토록 엄하게 표현하여, 모든 회개하는 신자에게 소망의 문이 되는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그것이 완화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병자가 더 조용해지고, 덜 시달리며, 그를 둘러싼 다른 필요한 일들이 덜 방해받을 때, 목사는, 원한다면,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원죄와 실제 죄를 고백하고 애통히 여기며; 본성으로 모든 이의 비참한 처지를, 진노의 자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고백하며; 모든 병과 질고와 죽음과 지옥 자체가 바로 그것들의 문제요 결과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병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며, 자기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원인을 알게 하시며,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와 생명으로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리스도를 붙잡을 믿음을 창조하고 강하게 하시며, 그 안에 그의 사랑에 대한 위로가 되는 증거들을 이루시고, 시험에 맞서 그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의 현재의 방문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을 견딜 인내와 힘을 그에게 갖추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딤을 그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날들을 연장하고자 하신다면, 그의 회복을 위한 모든 방편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그가 병을 제거하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시며, 사람들이 병중에 흔히 하는 거룩함과 순종의 서원과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부지런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도록 그를 허락하시기를, 그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으로 그의 날들을 마치기로 정하셨다면, 그가 자기의 모든 죄의 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관심과,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여, 그의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할 수 있기를; 이는 그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바라보고, 의심 없이 자기 전부를 그리스도께 던지며, 풀려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의 믿음의 마지막, 곧 자기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유일하시고 온전히 충족하신 구주요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와 중보로 받게 하려 함이다."

목사는 또한(그럴 이유가 있을 때) 그에게 자기 집을 정돈하여 불편을 피하도록 훈계할 것이며; 자기 빚의 지불에 유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배상하거나 만족시키도록; 자기가 불화하였던 이들과 화해하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도록 훈계할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용서를 바라기 때문이다.

끝으로, 목사는 현재의 경우를 이용하여, 병자를 둘러싼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어야 함을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와 화목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건강할 때 병과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고; 그들의 정해진 시간의 모든 날에 자기 변화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이생을 떠날 때, 매장하는 날, 시신은 집에서 공적 매장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단정하게 동행되어야 하며, 거기서 아무런 예식 없이 즉시 매장되어야 한다.

시신 곁에서나 그것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관습과, 그것이 무덤으로 옮겨지기 전 놓여 있는 곳에서의 다른 비슷한 관행들은 미신적이므로; 그리고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나 무덤에서 기도하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것이 심히 남용되어 왔고, 어떤 방식으로도 죽은 자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여러 방식으로 산 자에게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제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신을 공적 매장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벗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묵상과 담화에 힘쓰고, 목사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참석한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고인의 생전의 신분과 처지에 합당한 어떠한 시민적 예우나 경의도 매장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엄숙한 공적 금식에 관하여

어떤 크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한 백성에게 내려지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거나, 어떤 특별한 도발로 인하여 명백히 그것을 자초하였을 때; 또한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고 얻어야 할 때에도; 엄숙한 공적 금식(이는 온종일 계속되어야 한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의무이다.

경건한 금식은 온전한 절제를 요구하니, 모든 음식뿐 아니라(다만 육신의 연약함이 금식이 끝날 때까지 명백히 견딜 수 없게 방해할 경우는 예외이니, 그런 경우 기력이 다하려 할 때에는 자연을 지탱하기 위하여 매우 절제하며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세속적 일과 담화와 생각으로부터도, 그리고 다른 때에는 합법적인 모든 육신적 즐거움과 그와 비슷한 것들로부터도, 금식 동안의 화려한 옷과 장식 및 그와 비슷한 것들로부터도 절제하여야 하며; 더욱이 화려한 복장과 방탕한 습관과 몸짓과, 남녀 양성의 다른 허영들과 같이 그 본성이나 사용에 있어 추문이 되고 불쾌한 모든 것으로부터도 절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목사들에게, 자기 처소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금식 때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책망할 것을 권한다.

공적 모임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그토록 엄숙한 일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예비하는 데 모든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일찍이 회중에 이르러야 한다.

그날의 대부분은, 합당한 대로, 말씀의 공적 낭독과 설교에, 시편 찬송과 더불어, 그러한 의무에 합당한 정서를 일깨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나, 무엇보다도 기도에 사용되어야 하니,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곧 온 세상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지고의 통치자께 영광을 돌려, 그로써 우리 자신이 그분께 대한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감동되게 하며; 그의 여러 크고 부드러운 자비, 특별히 교회와 국가를 향하신 것을 인정하여, 그로써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서 더 효과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하며; 모든 종류의 죄를 그 여러 가중 요소와 더불어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못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우리 자신과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우리 왕과 모든 권세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다른 모든 이를 위하여(현재의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간절함과 확장으로 겸손하고 간절히 그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마땅히 받은 악들의 용서와 도움과 해방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적용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복들을 얻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주께 드리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입인 목사들은, 진지하고 온전한 사전 숙고 후에 마음으로부터 말하여, 그들 자신과 그 백성이 그로 인하여 크게 감동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녹아지게 하여야 하니, 특별히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그리하여, 그날이 참으로 영혼의 깊은 겸비와 애통의 날이 되게 하여야 한다.

낭독할 성경과 설교의 소재는 특별히 선택되어야 하니, 그날의 특별한 사안을 위하여 청중의 마음을 가장 잘 다루고, 그들을 겸비함과 회개로 더 잘 이끌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각 목사의 관찰과 경험이 자기가 설교하는 그 회중의 덕 세움과 개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는 세부 사항에 더 힘써야 한다.

공적 의무를 마치기 전, 목사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주의 것이 되도록 맡겨야 하니, 그들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고백된 목적과 결심으로, 특히 그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유죄하였던 죄들을 그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더 가깝고 신실하게 새로운 순종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온전한 간절함으로 백성에게 훈계하여야 하니, 그날의 일은 그날의 공적 의무로 끝나지 않으며, 그들은 남은 하루와 그들의 온 생애를, 공적으로 고백한 그 모든 경건한 정서와 결심을 사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안에서 강화함으로써 향상시켜야 하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정착되게 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행위에 달콤한 향기를 맡으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응답으로, 곧 죄의 용서와, 심판의 제거와, 재앙의 예방이나 물리침과, 그 백성의 처지와 기도에 합당한 복의 베푸심으로 진정되셨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권위에 의하여 명해진 엄숙하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우리는 다른 경우에도 회중들이 신적 섭리가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는 대로 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또한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다만 그들이 속한 회중이 금식이나 다른 공적 예배의 의무를 위하여 모여야 하는 날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의 날을 공적으로 지키는 것에 관하여

이러한 날을 지킬 때에는, 그것과 그것이 지켜질 계기를 합당한 사전 통지로 알려야 하니, 이는 백성이 그것을 위하여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날이 이르러 회중이 모이면(사적 준비 후에), 목사는 백성을 모인 목적인 그 의무로 격려하기 위한 권면의 말과, 그들이 모인 특별한 계기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는 짧은 기도로(다른 공적 예배 모임에서와 같이)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얻은 구원이나 받은 자비, 혹은 그 회중의 모임을 야기한 무엇이든 간결한 이야기를 하여, 모두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거나 인식하고, 그것에 더 감동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편 찬송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규례이므로, 그 목적에 적합한 어떤 시편이나 시편들을, 현재의 주제에 맞는 말씀의 어떤 부분을 낭독하기 전이나 후에 노래하게 하라.

그런 다음, 설교할 목사는 자기 설교 전에 이 현재의 사역에 특별히 관계된 추가 권면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그 후 계기에 합당한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하여 설교하여야 한다.

설교가 끝나면, 다른 경우처럼 설교 후에 교회와 왕과 국가의 필요를 기억하며(설교 전에 생략되었다면)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전의 자비와 구원에 대하여, 그러나 더욱 특별히는 현재 그들을 감사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고 엄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통상적인 자비가 계속되고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비에 합당한 다른 시편을 노래한 후, 회중을 축복으로 보내어 그들이 식사와 휴식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사는(그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엄숙히 훈계하여, 탐식이나 술 취함으로 흐르는 모든 지나침과 방종을 삼가게 하고, 특히 식사와 휴식 중에 이러한 죄들 자체를 삼가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도록 유의하게 하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의 찬양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 자신을 겸손하고 근신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식사와 즐거움이 그들을 더욱 즐겁고 넓게 하여, 그날의 남은 시간에 회중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하여 그 찬양을 거행하게 할 수 있다.

회중이 다시 모이면, 아침에 지시된 대로 기도와 낭독과 설교와 시편 찬송과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과정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새로워지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날의 공적 모임 중 하나나 둘 모두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이 있어야 하니(공적 겸비의 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들의 허리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더욱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이 끝날 때, 백성에게 그날의 나머지를 거룩한 의무 가운데, 그리고 서로 간의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자선의 증거 가운데, 그리고 주 안에서 점점 더 기뻐하는 가운데 보내도록 권면하여야 하니, 이는 주의 기쁨을 자기 힘으로 삼는 이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시편 찬송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회중 안에서 함께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그리고 사적으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을 공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의무이다.

시편을 노래함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조율되고 정돈되어야 하나; 주된 유의점은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노래하여, 주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한다.

온 회중이 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읽을 줄 아는 모든 이는 시편집을 가져야 하며; 나이나 다른 이유로 무능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이는 읽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회중 안에 읽을 줄 모르는 이들이 많을 때에는, 목사나 그와 다른 치리 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적합한 사람이 노래하기 전에 시편을 한 줄씩 낭독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적 예배의 날들과 장소에 관한 부록

성경에는 복음 아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된 다른 날이 없으니, 오직 주의 날,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뿐이다.

속되게 성일이라 불리는 축제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으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러 탁월하고 특별한 처분이 그 백성에게 계기와 기회를 베푸는 대로, 공적 금식이나 감사를 위하여 하루나 여러 날을 구별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필요하다.

어떤 봉헌이나 축성을 구실로도 어떤 장소도 거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되었다가 이제는 폐지된 어떤 미신으로 인하여 그러한 오염에 속박되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하여 거기 모이는 것이 불법하거나 부적절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공적 모임의 장소들이 그 용도를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